

“채권형펀드·해외펀드·ELS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주거연계증권)

자산관리 전문가들에 들어 본 'ISA시대' 재테크 전략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후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ISA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로 해외펀드, 국내 채권형 펀드, 주거연계증권(ELS) 등 기존에 세금을 물리던 상품군을 꼽고, 그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증산증이나 서민층에게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따라서, 절세 혜택을 위해 ISA를 이용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ISA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 PB(프라이빗뱅크)들의 조언이다.

◇**이영아** <BK기업은행 종합기획부 과장> ◇**이종혁**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 ◇**황재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차장>

“5년간 돈 묶이니

생활자금 따로 관리해야”

ISA는 일단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처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같은 가입 문턱이 없어지고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년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묶이고, 자금이 3~5년간 묶여 있게 된다.

사실 기존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지만, 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ISA도 기존 정책을 개선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돈이 묶여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민층이나 증산증 중에서도 하위 소득자들이 아니라, 증산증 중에서도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상품별로 보면 보험상품은 빠졌고, 예금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바뀌었고, 채권형 펀드와 해외펀드가 비과세로 편입됐다. 하지만, 예금을 5년간 묶어둘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해외펀드와 국내 채권형 펀드, ELS와 같은 파생상품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ISA에 넣지 않아도 비과세가 된다. 물론,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5년간 돈이 묶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5~3년)에 빠져 나오면 돈을 ISA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3~5년 만기 이후

지속적인 플랜 필요”

기존의 재형저축 등 상품은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제한적이었다. ISA는 외국 종합계좌를 모방해 이를 보완했다. 다만 5년 운용하고 끝나는 것은 단점이다. 재산형성을 위해 계속 이어갈 플랜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금, 펀드, ELS 등을 내가 원하는 비율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다. 해외까지 넓혀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좋다. 은퇴 후 목돈마련을 위해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주식형 펀드는 ISA가 아니라도 비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국내 주식형펀드는 ISA 포트폴리오에서 따로 떼어 관리하고, 지금 과세되는 상품 중에 절세가 필요한 것을 넣어야 한다.

지금 ELS는 수익률이 5~6%가 나오는데, 모두 15.4%의 세금을 매긴다. 이를 ISA로 편입하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나 분리과세(200만원 초과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펀드도 그렇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는 현재 15.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ISA를 활용할 수 있다. 금액이 연 20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약간 적다는 느낌이 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년 초 출시 예정으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 관리하는 금융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연간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가입하면 수익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펀드 한도는

3000만원까지 혜택”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예전에 재형저축의 사례도 그렇고, 비과세 혜택 자체가 크다고 해서 증산증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95%는 비과세다. 증산증 입장에서는 큰 장점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자산가들이 자녀나 배우자 등으로 분산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나, 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산해 ISA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살펴봐도, 펀드 중에서도 국내형은 이미 비과세고 해외 펀드도 3000만원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금 등의 정기성 상품이나 ELS 정도가 활용될 수 있다.

정기예금은 분산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증산증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형태인데, 여기에 묶여들 자금 여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증산증이 ISA를 이용해 자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후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4일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문위원장이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2010선 턱걸이

하반기 금리 인상 변수

화장품 업종 실적 주목

지난 주 국내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악화, 국제유가 급락, 중국 경기침체 위기가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을 통한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이른감이 있었다.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도가 낙폭을 키워 2010선까지 내려갔다.

미국 금리인상 우려와 글로벌 경제지표의 전반적 부진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중 가장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 소비재 계열사 주가가 하락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예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7월 고용보고서 내용은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다.

8일 발표한 고용보고서가 대체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기 진단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9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7월 미국 소매판매와 8월 미시진대 소비지출 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역시 전월 대비 소폭 개선이 예상되면서 소비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코스피는 뚜렷한 대외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 2000선을 두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지표 선방으로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진 미국에서는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과 경제지표 발표가 기존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화장품업체들의 양호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과 유로존 경기 개선 전망, 중국 주식시장 하반기적성 확보가 호재로 꼽힌다. 특히, 주요 화장품 종목의 실적 발표는 기존 주도주에 대한 안도감 확대에 이어질 것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생산·소비지표 악화 가능성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러 실적보다는 향후 모멘텀으로 관심이 이동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번 주 예정된 화장품 업종 실적 확인 이후 기존 주도주에 대한 안도감 확대가 예상되고 중소형주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폭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윤자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가계지출 255만원 중 식료품비로 65만원 쓴다

aT '2015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

엔겔계수 26.6%로 증가세

식품 연매출 '1조클럽' 19곳

지난해 각 가정이 식료품비로 65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식비로는 33만원이 사용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식품산업 주요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는 한달 평균 430만2400원을 벌여 255만1100원을 썼다.

가계소비 지출중 식료품비 지출은 65만65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엔겔계수는 26.5%로 10년전(2005년)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했다. 엔겔계수는 가계 소비지출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지수가 높다.

도시가구 엔겔계수는 전국보다 높았다. 도시가

구 평균 소득은 433만5000원으로 소비지출은 256만6000원, 이중 식료품비 지출은 68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엔겔계수는 26.6%다.

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했다. 전국 가구의 식료품 대비 외식 지출비중은 2010년 47.4%에서 2011년 46.3%로 떨어졌다가 2012년 46.6%, 2013년 47.2%, 2014년 48.1%로 상승했다.

도시가구의 외식비중도 46.8%, 47.1%, 47.7%, 48.5% 등 매년 증가하며 식료품 지출의 반가량을

채웠다.

2013년 기준 일본의 엔겔계수는 23.6%, 미국은 12.9%, 중국 도시는 35.0%, 중국 농촌은 37.7%로 조사됐다. EU의 경우는 2006년 조사에서 12.8%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연매출 1조원 이상 규모의 국내 식품기업이 5년 전보다 35.7% 증가했다. '매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식품기업은 2008년은 10곳에 그쳤으나 2009년은 14곳, 2014년은 19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5년 전보다 35.7% 증가한 수치다.

또 외식업 증가세도 뚜렷해 2013년 기준 사업체 수는 63만6000곳에 종사자수는 182만4000명, 매출액은 79.6조원으로 2004년에 비해 각각 6.0%, 17.2%, 64.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대문앞)
경조화환·동·서양화·꽃바구니·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

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

(주)세원모터스
북구 두암동 농협삼거리 LPG충전소입구
자동차정비, 타이어, 오일교환
kb손해보험대리점
대표 김경호 ☎062)513-0211

이경숙 갤러리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옆
친환경원목가구, 돌침대, 휴침대
식탁, 화장대, 좌탁, 돌소파전문매장
대표 이경숙☎062)224-288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2가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2가10번지
청국장, 가마솥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 269-14
평화맨션 버스승강장 건너편
동양화 매매, 각종표구전문
☎010-3633-2790, 267-797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원)
부대찌개, 찰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점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쭈꾸미, 붕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토담
광산구 비아소비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다나베음드
동구 남동 169-4 (충장로 171구구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맞춤 정장
결혼 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 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어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010-2828-2008

미락 식당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금호e마트 정문옆
한방간장게장, 꽃게무침, 갈치조림, 홍어조림
조기매운탕, 각종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김지수 ☎062)515-6464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삼고기, 주물럭,
오리뚫탕, 오리 장어탕
☎062)401-5253